

'6파전' 조선대 총장 선거운동 돌입

입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 발표 재정전문가·여성·50대 후보 등 후보자들 강점 내세워 득표 활동 의대 표심 큰 영향... 표결집 관심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면면이 주목되고 있다. 조선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20일 총장 선거 입후보자들의 기호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이계원(기호 1번)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홍성금(2) 자연과학·공공보건대학 융합수리과학부 교수, 김재형(3) 법사대학 법학과 교수, 김준성(4) 치과대학 치의예과 교수, 조훈(5) 공과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고영엽(6)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순이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기호 1번을 받은 이계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다. 교수이자 공인회계사로서 대학·법인의 재산관리위원, 자금운영위원, 예결산 자문위원 등을 두루 맡아 대학 사정에 정통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고 기업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취업에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실천하는 경영전문가'로서 대학재정 확충 등 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유일한 여성후보인 홍성금 교수는 조선대 구성원 중에서 총장 선거에 출마한 첫 여성이다.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 육성사업(ACE)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재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인사혁신처장, 민주평화위원장 등을 맡아 합리적인 일처리와 포용력 있는 인사 관리를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활발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대내외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준성 교수는 출마 후보 중에서 55세로 가장 젊다. 기획조정실장, LINC 3.0 사업단장을 맡은 그는 대학 본부 보직을 맡으면서 교직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조선대가 완도에서 추진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조훈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총장, 교육혁신원장을 역임했다. 현 민영돈 총장 체제에서 대학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등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과 분석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영엽 교수는 제26대 교수평의회 의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조선대병원 과장을 지냈다. 교수평의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교수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장 선거에서도 표결집 현상이 재현될지 관심을 모은다. 조선대 총장선거에서는 그동안 의대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5차례 총장 선거에서 4명의 의대 출신 총장이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표수는 175표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공과대학으로 112표다. 조선대 총장 선거의 경우 득표율 산정에서 교수 표가 많은 후보가 유리하다. 당선자는 교수 72%, 교직원 14%, 학생 9%, 총동창회 5%의 득표율을 적용해 환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1,2 순위 총장 후보자 2인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선거인단은 학생 1만9000여명, 교수 700여명, 교직원 290여명, 총동창회 200여명 등 총 2만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수사 단계부터 교원 변호사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통해 소송비도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최근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업무 기획단(TF)'이 광주지방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는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1644-

9575)로 피해교사들의 법률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 조정, 문서 검토 및 자문 등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및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동킥보드·유모차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화재 위험·납 등 기준치 이상 검출

감전과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가스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모차와 장난감에 대해서도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9월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 품목에서는 쿠광이 판매한 샤오미 제품(DDHBC22NEB) 등 5개사의 수입 제품에서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 배터리 안전 신고 확인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됐다. 유모차 상품에서는 프레임에서 납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사례와 인조가죽 보호 장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0.4배 초과한

사례가 발견돼 리콜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과 신장 등 장기의 손상이, 납에 노출되면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장난감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배, 납 함유량 기준치 20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방수 '네임 스티커' 9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해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리콜 명령한 77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m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21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할 송편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라지는 추석 차례상... 제사음식업체 매출 반토막

대부분 가족 여행·외식으로 대체 20~50대 43%만 "차례 지내겠다"

#. 나주 영산동에 거주하는 김미현(여·43)씨는 올 추석에도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다. 시어머님이 "이제 힘들어서 준비하기 힘들니 차례상을 간소화하자"고 제안해 지난 2018년까지 생선과 좋은 과일 등을 준비해 그나마 간소한 차례상을 차렸지만 지난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 가족은 대신 레스토랑, 뷔페 등에서 가족끼리 외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씨는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신안군에 있는 휴양시설에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김지현(여·37)씨도 지난 2020년부터 가족회의를 거쳐 명절 차례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추석을 앞두고 맛별이를 하며 어린 두 자녀까지 육아하는 김씨가 부담을 느끼자 남편이 나서 시댁 가족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어 시댁 가족들도 동의해 올해로 4년째 추석 차례상을 차리지 않게 됐다. 김씨는 "매년 명절마다가오면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부르워한다"며 "올해 추석에는 가족끼리 3박 4일로 제주도에도 다녀올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족대명절인 추서에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지역민이 늘고 있다. 직접 차례상을 차리는 것이 힘들어 업체에 주문하는 차례상도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이유로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예법을 중시했던 유교적인 색채가 없어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을 보고 차례를 도맡았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뛰어들거나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추세는 광주·전남 제사음식 상차림 전문업체 매출에도 반영되고 있다. 제사음식 전문 업체 관계자 A씨는 "지난 2020년까지는 광주지역 추석 차례상 배달 주문이 150여건 이상 있었지만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는 100여건을 겨우 넘겼다"면서 "올해는 예약도 더 줄어들

어 매출이 40%가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5년 전만 해도 차례를 간소화하긴 했어도 차례 형식은 갖추는 손님들이 많아 30만원짜리 작은상은 주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차례상의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않거나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뿜었다. 또 다른 제사음식 배달업체 관계자 B씨도 "광주·전남 추석 차례상 주문 건 수가 지난 2019년까지는 200여건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140여건에 그쳤다"고 울상을 지었다. 지난 17일 롯데멤버스가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가 56.4%로 '차례를 지내겠다'라고 응답한 43.7%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대인들이 명절을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힘'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차례'라는 정해진 형식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 혐의 재판 받는다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4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3월 17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 마약류를 언급하며 알약을 몰과 함

께 삼켰다. 이후 3월 28일 전씨가 입국을 하자 경찰은 전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광주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다. /연합뉴스

2023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 생활체육 & 장애인좌식 ◀

2023. 09. 22 (금) ~ 09. 24 (일) (3일간)

장소
빛고을체육관 및 보조경기장

주최
광주광역시배구협회,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주관
광주광역시배구협회,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후원
페퍼저축은행,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KSP, 국민체육진흥공단